

담화와 인지, 제8권 1호, 2001년

조건 표지에서 문장종결 표지로의 문법화*

구현정 · 이성하

(상명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Koo, Hyun Jung & Rhee, Seongha. 2001. Grammaticalization of a Sentential End Marker from a Conditional Marker. *Discourse and Cognition* 8.1, 1-19. This paper explores grammaticalization phenomena of a conditional marker, *-ketun*, that grammaticalized into a sentential end marker in Korean. According to historical data, *-ketun* was the primary marker of conditionality up to Middle Korean, which gradually lost its primacy to *-umyen*, the primary conditional marker in Modern Korean. Longitudinal frequency counts show mirror image token frequencies of these two markers. Focusing on the "aftermath of this grammaticalization war", we investigate the developments taken by the loser of the war, *-ketun*. It is actively acquiring new functions in discourse, e.g. a sentential end marker that signals 'reason' or 'cause'.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shades of meaning carried by *-ketun* and its variants that evolved from this peculiar grammaticalization phenomenon, and argues that such semantic and functional shifts are a result of subjectification and speaker's strategy to effectively engage the addressee and to seek confirmation of his or her opinion from the addressee. (Sang Myung University an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 머리말

그동안 문법화 연구는 새로운 문법소가 생성되는 동기와 과정을 밝히는 데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연구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개별 언어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범언어적 공통성을 규명하는 데에도 큰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어휘적 단어가 형태나 통사, 담화의 층위에서

* 이 논문의 초고는 2000년 4월 Oxford, Mississippi의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에서 열린 Southeastern Conference on Linguistics 학회에서 구현정 · 이성하(2000)로 발표되었다. 학회에서 비평과 제언, 토론을 해 주신 Marvin Ching 외 여러 분들과, 이 논문을 심사하시며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완전한 문법소로 발전하는 경우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Kurylowicz(1975 [1965]) 이후, 주로 시작점과 끝점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문법성의 증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문법화 현상의 여부를 가려 왔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습화와 의도적인 반복을 통한 비교행동학적 실현(Haiman 1994)”이라는 관점에서 문법화를 이해하고, 이미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문법소가 더욱 문법화하여 담화상황을 통해 새로운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어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거든’이 문장종결어미로 바뀌어 가는 현상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대 국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조건 표지는 ‘-으면’과 ‘-거든’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조건 표지인 ‘-으면’과 ‘-거든’의 빈도수 비교를 통하여 조건 표지로서 ‘-거든’의 변화를 살펴보고, 조건의 기능이 약화된 ‘-거든’이 어떠한 경로를 밟아가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문법화의 경쟁에서 밀려난 형태가 어떤 경로로 또다른 문법화의 과정을 밟아가는지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흥미있는 주제가 된다.

조건의 대표적 형태인 ‘-거든’과 ‘-으면’이 어떤 경로를 통해 문법화 되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건 표지가 변화해온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헌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조건의 문법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동일한 내용을 여러 시기의 국어로 표기해 놓은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코퍼스의 절대 크기가 다를 경우 계량적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량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건의 연구에 뿐만 아니라 문법화의 연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둘째, 조건 표지 가운데 ‘-거든’은 현대 국어를 통하여 보면 문어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어체로 쓰여진 자료가 있어야 한다. 언어 연구가 ‘글’의 연구가 아니고 ‘말’의 연구에 초점이 놓이며, 언어변화 현상이 주로 구어에서 더 빨리 나타나고 더 자주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구어체로 된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자료가 「노걸대」의 연해류 문헌이다. 「노걸대」의 연해류 문헌으로는 1512년경 「飜譯老乞大」와 1670년 「老乞大諺解」, 그리고 1765년의 「淸語老乞大」와 1790년경의 「蒙語老乞大」로 간행된 자료들이 있을 뿐 아니라 1995년 「飜譯老乞大」를 현대 국어로 번역한 자료가 있어서 여러 시기에 걸친 형태의 변화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노걸대」는 중국으로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대화체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구어체 자료로서의 조건도 충족시켜 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번역노걸대」를 16세기의 언어 자료로 사용하고, 「노걸대연해」를 17세기의 언어 자료로 사용하며, 「몽어노걸대」를 18세기의 언어 자료로 사용하고, 국어사자료연구

회 역주(1995) 「역주 번역노걸대」를 20세기의 언어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법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영하(1998)의 방송상담 대화 자료와 대한민국 국어 정보베이스 II(KAIST KORTERM, 1998)의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조건 표지의 역사적 고찰

국어의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부터 문법화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건의 원형태를 재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어의 특성상 기록되어 있는 언어자료가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고, 시기에 있어서도 신라시대 향가 자료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그 이전의 언어 현상을 밝힐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향가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서 표기되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언어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문법적 형태들은 몇 개의 형태로 고정시켜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시기의 정확한 언어 자료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조건 표지의 원형태를 재구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모든 언어의 형태들이 그렇듯이,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도 많은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언어의 문법 형태들이 기원적으로는 어휘적인 형태로부터 문법적인 형태로, 그리고 좀더 문법적인 형태로 변화한 것이라는 문법화의 이론은 조건 표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조건의 원형태와 어휘 형태소와의 관련성은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조건의 형태들이 좀더 문법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향가에는 조건 표지가 ‘等’ 또는 ‘等隱’으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等’은 ‘等隱’의 축약형이라는 점에서, 조건 표지를 재구하면 ‘*-든/든’¹⁾에 해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이 형태만 쓰인 것인지에 관하여는 밝힐 수 없고, 그 이후 어떤 형태들이 어떤 경로로 발달하여 왔는지도 밝힐 수 없지만, 15세기 자료에서는 조건 표지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의 조건 표지로는 ‘-든, -든, -거든, -어든, -거든, -으면, -은덴, -은텐, -은던, -은든, -던, -으란디, -관디, -곤디, -완디, -을텐, -늘, -눌, -을시언딩, -을씨언딩, -을선딩, -은돌’ 등이 나타난다 (권재일 1988). 그러나 이러한 형태들이 모두 15세기를 기점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전 시기부터 이와 같거나 유사한 형태들이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으면’의 등장이다.²⁾ ‘-으면’은 출현과

1) ‘等隱’을 小倉進平은 ‘-든’으로, 양주동, 지현영, 김완진 등은 ‘-든’으로 재구하였다.

2) 서태룡 (1997)에 의하면 ‘-으면’은 고려 중기 석독구결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고려 후기 및 조선

더불어 점점 그 쓰임의 폭을 확장해 가서, 현대 국어에서는 다양한 조건 표지 가운데 몇몇 형태만이 특수한 장르에 제한적으로 쓰이면서 남아 있고, 조건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기능은 모두 ‘-으면’이 담당하게 되었다. 또 다른 변화로는 가장 원형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거든’이 조건 표지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는 것을 들 수 있다. ‘-거든’은 일부 특정한 문맥을 제외하고는 조건 표지로 사용되지 않으며, 조건 표지로서의 기능을 ‘-으면’에 양도하고, 새로운 담화적 기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거든’과 ‘-으면’ 두 문법소의 기능적 추이를 문법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단어의 비밀은 그 단어의 어원에 숨어 있다고 주장한 Horne Tooke(1857 [1786 & 1805]) 이후, 어원어의 의미가 문법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나(Hopper 1987), 모든 문법소의 운명은 어원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Bybee *et al.* 1994) 등에서 어원이 된 형태의 구성이 그 문법소를 연구하는 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여 왔다.³⁾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논의하려는 ‘-거든’과 ‘-으면’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든’은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어원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구현정 1999a).⁴⁾

(1) -거든/거돈 [거+ㄷ+은/는]

-거-: 미지각을 나타내는 문장 선어말 어미

-ㄷ-: ‘장소’ ‘사물’ > ‘시간’

-은/는: 주제 표지

위의 어원 형태소를 중 ‘-ㄷ-’의 참여는 흥미로운 점을 시사해 준다. 원래는 ‘장소’나 ‘사물’을 뜻하던 명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로 의미적 전이가 일어난 것이다(유창돈 1980:250-254, 정재영 1996[1993]). 이러한 의미변화의 방향은 Heine *et al.*(1991a,b)에서 제시한 범언어적 변화방향, 즉 [사람>사물>행위>공간>시간>질]이라는 방향과 일치한다. 시간성과 조건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Traugott 1985:295; Akatsuka 1985:636-7; 구현정 1998), 또한 주제 표지가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초기의 순독구결에서 ‘-彌隱(며ㄴ)’이 결합한 표기가 앞서 나타나고, 이어 ‘-面(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도 자료의 제약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앞 시기에 ‘-든/든’이 폭넓게 쓰인 것으로 보아 ‘-면’이 후대에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지적하고 있다.

- 3) 국어의 경우 시상태 표지들인 ‘-어 있-, -았-, -고 있-, -겠-’ 등의 문법화에 있어서 각 어원적 형태들이 문법소의 의미에 어떻게 의미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성하(1996) 참조.
- 4) ‘-거든’의 어원적 구성에 관하여 서태룡(1998)에서는 [거+든](서태룡 1988), [거+ㄷ/더+은](구현정 1989), [거+명사적요소 ㄷ/ㄷ+은](서태룡 1997)의 견해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ㄷ/더-’가 장소나 사물을 나타내는 ‘-ㄷ-’로부터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 같은 견해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것도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Haiman 1978; Traugott 1985; 서태룡 1998; 구현정 1989a, 1999a,b). 위의 형태소들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든’은 결국 발화시점에서 “미지각된 어느 시점을 주제로”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으면’은 (2)에서 보는 것처럼 어원적으로 [으며+은/는]으로 구성되어 있다(구현정 1989a, 1999a)⁵⁾

(2) -으면 [으며+은/는]

-으며: 동시적 시간의 연결 표지

-은/는: 주제 표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으면’도 시간 표지와 주제 표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건]이라는 문법적 개념이 [시간]과 [주제]라는 개념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고, “... 때를 주제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조건 표지 ‘-거든’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조건 표지의 문법화 경쟁

위에서는 국어의 조건 표지의 역사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으면’과 ‘-거든’이 어떠한 구성으로부터 문법화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 형태들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였는지를 각 시대별 노결대의 언해류 문헌들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⁶⁾

3.1 ‘-으면’의 문법화

‘-으면’이 문법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가장 명확한 자료는 사용 빈도수의 확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시기별로 ‘-으면’이 사용된 빈도수는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3) 각 시기별 ‘-으면’의 사용 빈도수

번역노결대 (16세기)	노결대언해 (17세기)	몽어노결대 (18세기)	역주 번역노결대 (20세기)
142	165	186	227

5) 서태룡(1998)에서는 ‘-으면’을 [으며+은]의 결합으로 보고 이것을 다시 [음+이+어+은]으로 분석하였다. 신상철(1987)에서는 [음+은]의 결합으로 보았다.

6) 국어 조건 표지의 문법화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구현정(1999a,b) 참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 국어에 가까이 올수록 ‘-으면’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은 먼저 일반화(generalization) 현상과 관련이 있다. Bybee & Pagliuca(1985:63)에서는 문법화에서 일반화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의미의 특수성이 적을수록 그 형태가 쓰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결국 그 분포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특수 자질들이 적어지고 더 일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동시성]만을 나타내던 ‘-으면’이 [계기성]까지도 포함하는 [시간성] 표지로 일반화되고, 이것이 분포의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의미가 감소됨에 따라 기능은 증가되는 것이다.

한편 ‘-으면’의 분포가 확대되는 것은 전문화와 관계가 있다. 즉 조건 표지와 관련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여러 형태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으면’이 조건 표지의 기능을 전담하는 문법소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으면’ 형태는 조건 표지로서 일반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문법화의 변화를 겪어 현대 국어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3.2 ‘-거든’의 문법화

지금까지 살펴본 ‘-으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든’의 문법화 추이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자료도 역시 사용 빈도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시기별로 ‘-거든’이 사용된 빈도수는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4) 각 시기별 ‘-거든’의 사용 빈도수

번역노걸대 (16세기)	노걸대언해 (17세기)	몽어노걸대 (18세기)	역주 번역노걸대 (20세기)
98	86	47	29

현대 국어에 가까이 올수록 ‘-거든’의 사용 빈도수가 낮아지는 것은 앞서 살펴본 일반화나 주관화와 관계된 현상이다. ‘-으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일반화된, 즉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든’은 점점 더 일반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 형태가 쓰일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축소되어 사용 빈도수가 낮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번역노걸대’에는 나타나지 않던 청자의 인칭이나 의향법의 제약이 현대 국어에서 발견되는 것도 ‘-거든’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조건의 원형태로 추정되는 ‘-거든’ 형태가 가지고 있던 그 원형적인 조건 표지의 의미 기능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성]과 [청자 확인] 등의 의미영역으로 특수화되고, 이것이 분포의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거든’의 분포가 축소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전문화와 관계가 있다. 조건 표지와 관련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여러 형태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으면’이 조건 표지의 기능을 전담하는 문법소로 변하게 되는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거든’은 상대적으로 조건 표지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총위화의 원리에 의해 예측되는 바대로 ‘-거든’도 각 시기별로 함께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분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든’의 문법화와 관련된 또 다른 원리는 주관화(subjectification)이다. 주관화는 언어 형태의 의미가 변화할 때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점점 더 주관적인 의미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명제 혹은 외연 위주의 의미에 화자 자신의 관점을 투사함으로써 점점 주관적인 의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며, 실제적 상황에서 담화적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이다(이성하 1998:151). ‘-거든’이나 ‘-으면’이 시간성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조건 표지로 발달하는 것은 주관화의 예이다. ‘시간적 순서 > 조건’으로의 변화는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든’의 주관화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대 국어의 구어체에서는 조건 표지의 접속어미로부터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지는 종결어미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4절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3.3 ‘-으면’과 ‘-거든’의 문법화 비교

위에서 살펴본 ‘-으면’과 ‘-거든’의 문법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5) 각 시기별 ‘-으면’과 ‘-거든’의 사용 빈도수

	번역노걸대 (16세기)	노걸대언해 (17세기)	몽어노걸대 (18세기)	역주 번역노걸대 (20세기)
‘-으면’	142	165	186	227
‘-거든’	98	86	47	29

표 (5)에서 보면 고대 국어에서부터 조건 표지의 원형적인 표지로 사용되던 ‘-거든’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차츰 분포가 감소하고, ‘-으면’의 분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 국어에 많은 조건 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지들의 반비례 관계가 직접적으로 두 형태 사이의 상관관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건 표지들과의 상관관계로부터 도출된 부수적인 현상인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시기별 노걸대 자료를 ‘-거든’과 ‘-으면’의 상관관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

음과 같은 경우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16세기 자료와 17세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조건 표지들이 ‘-으면’으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거든/어든’이 ‘-으면’으로 바뀌는 예들이 6회 나타난다.

- (6) a. 갑곳 잇거든, 풀오 흐다가 ㄹ장 디거든, 안직 머추워 두어든
(번역노걸대 상 70)
b. 갑시 이시면, 풀고 흐다가 ㄹ장 천흐면, 아직 잠싼 머물워 두리라
(노걸대언해 상 63)

또한 17세기와 18세기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거든/어든’이 ‘-으면’으로 바뀌는 예들이 18회나 나타난다.

- (7) a. 흐다가 외오디 못흐여든, 덕실 선비흐하 어피고 세 번 티느리라
(노걸대언해 상 3)
b. 萬一 能히 외오디 못흐면, 檢舉흐는 선비 굽히고 셋식 치느리라
(몽어노걸대 1-4)

- (8) a. 네 이의 몰 폴라 가거든, 우리 벗 지어가미 마치 도토타
(노걸대언해 상 7)
b. 네 몰 폴라 가노라흐면, 우리 벌하야 가면 一定 진실로 도흐리로다
(몽어노걸대 1-11)

18세기와 20세기의 자료를 비교해 보아도 ‘-거든/-거든’이 ‘-으면’으로 대체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변화의 예는 전체 비교에서 모두 24회가 나타난다.

- (9) a. 늙다가 저녁 되거든, 스승 얹히셔 사술 싸혀 글 외이어
(몽어노걸대 1-4)
b. 저녁에 이르면, 스승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글외우기를 하는데
(역주번역노걸대 상 3)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면 ‘-거든’이 ‘-으면’으로 대체되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거든’의 기능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으면’의 기능이 급속하게 확장되면서, 의미상의 일반화와 기능상의 전문화가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능이 약화된 ‘-거든’이 ‘-으면’과 결합하여 ‘-거드면’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거드면’은 1890년경 독립신문을 비롯한 몇몇 신문에서만 쓰이다가 1910년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⁷⁾

조건 표지 ‘-거든’이 점점 기능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일반적인 조건 표지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으면’이 담당하게 되고, ‘-거든’은 특정한 문맥에서만 조건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것은 Hopper(1987, 1991)에서 제시한 이른바 층위화(layering)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 이상의 문법소들이 공존하는 단계에서 각 문법소들이 사용되는 것은 해당 통사적인 특징이나, 의미상의 관계성, 담화의 스타일, 문체, 화자의 관점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통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세기에는 나타나지 않던 ‘-거든’의 인칭, 의향법의 제약이 나타나서 현대 국어에서는 특정한 인칭과 의향법에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a. 내혀보져 힘 잇거든, 내 사리라 (번역노절대 하 30)
 ((활을) 내가 당겨봅시다. 힘이 있거든(?) 내가 사겠소)
 b. 겨스리어든 금으로 꾸민 씨를 띄며 (번역노절대 하 51)
 (겨울이거든(?) 금으로 꾸민 띠를 띠며)

‘-거든’은 통사적인 제약과 함께 의미적으로도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문법소로 전문화하면서 ‘-으면’과 다른 층위를 형성하며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 예 (11)에서 보는 것처럼 후행절에 의문문의 형식과 결합하면서 비교를 통한 반영적인 조건이나 양보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⁸⁾

- (11) a. 어린아이도 잘 해내거든, 하물며 어른이 못 해낼까?
 b. 그가 가난한 줄 내 알았거든, 어찌 그런 부탁을 하겠는가?

그러나 양보를 나타내는 ‘-거든’의 기능은 새롭게 취득된 기능이 아니고, 다음 예 (12)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중세 국어 문헌에서도 보이는 기능이다.

- 7) ‘-거드면’에 관해 리의도(1990), 이지영(1999) 등에서는 ‘-거든’과 ‘-으면’이 녹아붙은 형태로 보았으나, 최전승(1992)에서는 18세기 국어에서부터 확인되는 ‘-게 되면’ 구성이 ‘-거드면’과 같은 방언적 변화를 거쳐 19세기 후반의 전라방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현희(1994), 정재영(1996) 등에서는 ‘-더면’에 선어말어미 ‘-겠-’이 통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8) 정연희(2000)에서는 이와 같은 비교의 문맥에서는 문어체나 교어적인 느낌을 주는 문장에서만 사용될 뿐, 구어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문체 및 장르에 따른 차이란 점에서 동일한 지적이다.

(12) 사르미 구지즈며 티거든 다 츠마 佛道 求호는 양도 보며(석보상절 13:22)

따라서 ‘-거든’이 양보적 조건 표지로 사용되는 것은 양보와 조건이 가지는 개념적 인접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구현정 1998), 기존의 기능 영역 중에서 축소된 영역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거든’의 종결어미화

조건 표지로서 ‘-으면’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거든’이 접속어미 가운데 양보적 조건을 나타내는 기능만을 전담하는 문법소로서 충위를 이루는 현상과 함께, ‘-거든’은 종결어미로서 기능이 변화된다.⁹⁾ 대한민국 국어 정보베이스 II(KAIST KORTERM, 1998)에 의하면 ‘-거든’이 사용된 전체 1,617개의 용례 가운데 종결어미로서의 쓰임이 1,062개로 나타난다.¹⁰⁾

이 현상은 통사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로 이루어진 접속문 구성으로부터 단순문 구성으로 바뀐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어와 같이 [주어-동사-목적어]의 어순을 가진 언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통사적 위계상 선행절이 후행절에 종속되어 있으며, 접속어미는 선행절에 붙는데, 접속어미가 종결어미로 되면서 선행절만이 남아 독립된 문장이 되고, 원래의 후행절은 일종의 담화 전략상 생략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즉 선행절은 종속절에서 주절로의 위계적 상승(hierarchical upgrading)이 일어나고, 후행절은 극단적인 위계적 강등(hierarchical downgrading)이라 할 수 있는 소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미상으로도 큰 변화를 초래하여서, 담화참여자들 사이의 의미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화용적 추론에 의해 생겨나게 되는 귀류적 의미들이 관습화되면서 새로운 종결어미의 의미의 일부로 편입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특히 구어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거든’이 구어체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종결어미 중의 하나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여러 층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1 절 접속에서 담화 접속으로

조건 표지로서의 ‘-거든’은 선행절의 명제가 후행절의 명제를 유의미하게 하

9) 이현희(1994:73)에 의하면 ‘-거든’이 접속어미에서 종결어미로 변화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거든’은 ‘-아’, ‘-지’와 마찬가지로 후행문의 절단으로 생겨난 새로운 종결어미류이다.

10) 실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접속어미로 분류된 541개의 용례 가운데서 대부분이 종결어미의 용법으로 나타나서, 실제로는 종결어미의 쓰임이 더 높은 분포로 나타나며, 접속어미로서의 쓰임은 문어적 표현이나 고어적인 표현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근본적으로 절 접속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든’이 문장종결 표지로 변화하면서 그 기능이 문장과 문장의 접속, 즉 담화 접속 표지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13) a. 거지가 오거든, 밥을 주어라.

b. 패스트랑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층에서는 남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피울 수가 없어요.

위의 예에서 보면 (13a)에서는 ‘-거든’이 전형적인 절 접속어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13b)에서는 ‘-거든’이 문장의 종결 표지로 사용되면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접속하고 있다. 즉 앞 문장의 명제 “패스트랑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화제로서 제시하고, 이 제시된 화제에 대해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유도하는 기능을 ‘-거든’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연희(2000)에서는 이 기능을 후행 발화 내용의 배경 제시 역할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의 예는 또 다른 담화적 접속기능의 예를 보여 준다.

(14) 여기 자리 좀 맡아 줘. 이따가 그 사람 올 거거든.

위의 예에서 ‘-거든’은 앞에 있는 청유문에 대한 이유 설명의 기능을 갖고 있다. 즉 담화상 후행문이 선행문에 대한 이유제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거든’의 이러한 기능은 선행문을 담화책략상 초점을 두어 먼저 발화하고 나서 후행문은 일종의 보충을 위한 추가진술(afterthought) 또는 교정적 발화(repair)로 제시하되, 후행문 뒤에는 선행문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이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이유]가 인식적으로 [조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거든’은 담화의 선행문에도 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상승억양(rising intonation)이 함께 사용된다.

(15) 이따가 그 사람 올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자리 좀 맡아 줘.

즉 ‘-거든’이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 표지로서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에는 후행문에서 선행문으로의 의미 보충 방식을 택하는 것이 무표적이고, 선행문에서 후행문으로의 의미 보충 방식은 유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억양으로 그러한 의미적 결속관계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든’은 다음과 같은 담화상의 결속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16) A-1: 얼굴색이 안 좋는데 무슨 일이야?

B-1: 응. 부부싸움을 했어.

A-2: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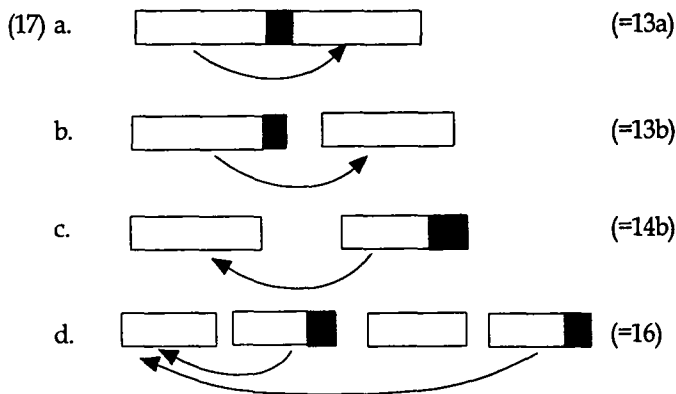
B-2: 마누라가 30일간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했거든.

A-3: 그거 기쁜 소식 같은데?

B-3: 그랬지. 그런데 오늘이 딱 30일째 되는 날이거든.

위의 예 (16)에서는 ‘-거든’이 모두 이유를 제시하는 종결어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들 각각은 모두 [질문-응답]의 대응쌍 형식에서 각 쌍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보다는 첫 질문에 대한 보충적 응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B-2]와 [B-3]은 각각 [A-2]와 [A-3]에 대한 응답이기보다는 모두가 [A-1]에 대한 응답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거든’의 의미 결속 기능이 담화상에서 매우 넓은 작용역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절 접속 표지로부터 담화 접속 표지로의 기능변화와 유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7a)는 예 (13a)에서와 같이 절 접속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때의 전형적인 의미 보충 유형을 나타내며 (17b)는 예 (13b)에서와 같이 화제 제시의 기능을 가진 담화 접속으로서의 기능을 도식화한 것이다. (17c)는 예 (14)에서와 같이 이유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 담화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도식화한 것이며, (17d)는 예 (16)에서와 같이 ‘-거든’이 전체 담화에서 맥락에 따라 한 주제적 명제에 대해 여러 문장에서 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의미수식기능을 하고 있는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4.2 청자-확인에서 화자-확인으로

‘-거든’이 종결어미로 사용되면서 청자-중심에서 화자-중심으로 담화중심성(discourse orientedness)이 변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 (18) a. 영이가 집에 오거든, 이걸 줘라.
 b. 날이 어두워지거든, 그냥 돌아오거라.
 c. 숙제를 다 했거든, 나가 놀아라.
- (19) a. 요즘 무광택 철제 가구가 있거든요.
 b. 요즘 문화센터에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c. 여기는 경희대 앞이거든요.

위의 예에서 보면 ‘-거든’이 (18)에서와 같이 절 접속 표지로 사용될 때에는 이 표지가 부착된 명제 즉 [영이가 집에 온다], [날이 어두워진다], [숙제를 다 한다] 등과 같은 선행절 명제의 실현에 대한 확인의 부담이 청자에게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든’이 담화 접속 표지로 사용된 (19)에서는 이 표지가 부착된 명제들이 모두 화자에 의해 확인된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명제에 대한 진실성(veracity)은 전적으로 화자의 부담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거든’이 종결어미화하면서 ‘문장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서법 표지화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담의 방향성 변화는 화자가 정보를 자원하여 제공할 때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 청자에게 조언을 자원할 때와 같은 경우에 ‘-거든’을 자주 사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담성과 담화상 정중어법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구현정 2000 [1997]), 종결어미 ‘-거든’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제를 살펴보면 [화자의 주관화된 진실성/유효성 > 정보력의 약화 > 청자에 대한 수용부담 감소 > 체면 유지(face-saving)]와 같은 연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담감소 기능은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을 비교하면 쉽게 드러난다.

- (20) a. 체인본부가 없다는 건 그 업종이 도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b. 체인본부가 없다는 건 그 업종이 도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 (21) a. 제 생각엔 그건 별로 안 좋거든요.
 b. 제 생각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위의 예를 보면 (20a)와 (21a)는 종결어미로서의 ‘-거든’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술의 ‘-어요’ 종결형을 사용한 (20b)나 (21b)와는 수행력(illocutionary force)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거든’이 사용된 (20a)와 (21a)는 모두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단언의 정도가 약화되어 있어서 청자에게 부담이 적은 반면, (20b)와 (21b)는 청자에게 정보수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21b)에서처럼 화자가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판단에 의존했을 뿐이라는 구체적인 표지가 “제 생각엔...”이란 형식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든’의 유무가 수행력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¹¹⁾

이러한 기능변화는 Traugott & König(1991: 208-209)에서 제시한 의미화용의 경향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거든’이 그 원래의 구성에 있어서 [장소, 사물]을 가리키다가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로 의미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것이 접속어미라는 문법소로 문법화되어 [조건]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변화한 것은 의미화용 경향성 II, 즉 [외적/내적인 상황 > 텍스트적 상황]으로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조건]에서 [이유/원인] 등 화자의 주관화된 심리상태 표지는 의미화용 경향성 III, 즉 [텍스트적 상황 > 화자의 주관적 신념 상태]로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4.3 문장-배경에서 담화-배경으로

‘-거든’의 변화에서 보이는 또 다른 현상으로는 문장의 배경 설정 기능으로부터 담화의 배경 설정 기능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의 4.1에서 논의한 바 있는 절 접속에서 담화 접속으로의 기능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담화 접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담화상 배경의 설정인데, 담화의 배경 설정이란 곧 담화의 주제 표시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이다. 조건과 주제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Haiman(1983), 구현정(1989b) 등에서 이미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문장-배경과 담화-배경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날이 어두워지거든 그냥 돌아오너라.

(23) a. 거기서 10분쯤 걸어가면 오감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로 나오세요.

b. 저 혼자서 패스토랑이란 가맹점을 할까 하거든요. 그런데 전망이 어

11) 이해영(1996)에서도 ‘-거든’을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로 보았다. 또한 이것은 Heine *et al.* (1991:190-191)에서 제시한 대인기능의 텍스트화(textualization of interpersonal functions)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평가 문의를 드릴라고요.

- c. 봉천동에 다섯 평짜리 점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건강보조식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연 운영이 안돼요.

위의 (22)에서는 ‘-거든’이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해당 문장의 주체로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23)의 예들에서는 ‘-거든’이 종결어미화 하면서 자동적으로 담화의 주체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거든’으로 종결된 발화문은 다음 발화를 이어가는데 있어서 배경이 된다. 종결어미로 쓰인 ‘-거든’은 배경적인 서술을 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화에 참여하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전개될 자신의 발화나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공감을 얻기 위해 공유 정보를 쌓아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해영 1996:100).

(24) A-1: 지금 애기가 다섯 살이거든요.

B-1: 네.

A-2: 근데 작년에 1차 뇌염주사를 맞았거든요.

B-2: 네.

A-3: 근데 올해에도 또 맞춰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25) a. 여름철에는 음식 안에서 그 균이 증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뜨거울 때 아니면 아주 차가울 때 먹는 게 좋습니다.

b. 지사제는 균이 장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예문 (24)에서는 ‘-거든’으로 종결된 발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발화의 배경적인 서술을 함으로써 청자를 대화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예문 (25)에서는 자신의 발화에 대해서 정당성과 공감을 얻기 위해 공유 정보를 쌓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담화의 주체는 (23)-(25)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속적으로 구체화(successive narrowing)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담화상의 주제 표지는 중첩을 많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거든’의 주제 표지 기능은 현대 구어체 담화에서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4.4 문장 서법 표지에서 담화 서법 표지로

조건은 한 문장을 단위로 하는 문장의 서법을 나타내는 한 범주이다. 종결어

미로 쓰인 '-거든'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한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하지만, 사실상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대인관계 구성소로서 담화 서법 표지의 구실을 한다. 화자의 주관적 경험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인식론적 서법의 표지인데, 주로 올림의 억양과 결합해서 화자가 자신의 말하는 내용에 대한 청자의 주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담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다음 화자에게 순서를 넘겨주는 교체적정지점(Transition Relevance Place)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어서 순서교대를 용이하게 하는 표지로 사용되기도 한다.

(26) A-1: 여보세요. 어디에 누구신가요?

B-1: 네, 봉천동인데요.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

A-2: 네, 그런데 성함은 말씀해 주셔야 하거든요 (↗)

B-2: 그래요? 근데 좀 췌피하거든요 (↗)

위의 예 (26)에서 보면 (B-1), (A-2), (B-2)에서 모두 '-거든'을 종결어미로 사용하면서 상승억양을 이용하고 있다. 즉 상승억양을 동반하는 '-거든'은 교체적정지점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승억양이 청자에게 발화에 대한 인식적 현저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화자의 참여를 강제하는 의문문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범언어적인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대화상의 교체적정지점을 표시하는 기능이 순수하게 상승억양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위의 예들에서 '-거든'을 삭제한 후 상승억양을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상승억양이 없는 경우에는 '-거든'이 문장종결어미로서 문장은 종결하지만 발화자의 발화가 끝났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행문을 계속해서 발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체적정지점을 표시하는 기능은 '-거든'과 상승억양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문법적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담화적 기능은, 첫 단계에서 원래 조건이라는 문장내적 서법 표지로서의 기능을 가졌던 절 접속으로서의 '-거든'의 기능으로부터, 다음 단계에서 주관적인 판단, 즉 인식적 서법(epistemic mood)을 나타내는 문장 종결어미로서의 기능을 거쳐, 마지막으로 담화의 발화순서를 배열하는 담화적 전략을 가지는 종결어미로서의 기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간 '-거든'의 문법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국어의 조건 표지 '-거든'이 어떠한 문법화 경로를 거쳐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원래는 조건성을 나타내는 원형적인 표지로서 사용되었던 이 문법소가 새로이 등장하게 된 ‘-으면’에 의해 기능 영역을 대부분 빼앗기고 특수한 영역에서만 충위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조건 표지 영역에서의 의미기능 강등이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특히 문장종결 표지로서의 기능 속에서, 담화의 접속, 화자 중심성, 담화-배경 제시, 담화상의 교체적정지점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을 획득하였음을 용례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동안의 문법화 연구에서는 한 문법소가 만들어져 점점 그 기능을 확장해 가다가 새로이 출현한 다른 경쟁적인 문법소에 의해 차츰 그 영역을 잃어 가다가 결국은 사멸하는 일종의 순환적 변화 또는 그 과정의 일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룬 ‘-거든’은 그러한 문법화 과정의 끝부분에서 사멸이 아닌 새로운 기능의 획득을 통한 생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거든’의 문법화 현상은 현대 국어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비한정 표지의 종결어미화 현상의 한 부분으로, 커다란 변화의 양상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개별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개별적인 사례 연구들을 통해 ‘-거든’과 유사한 문법소들이 문법화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연구하고, 이를 종합하여 거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구현정. 1989a. 현대 국어의 조건월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현정. 1989b. 조건의 원형태와 ‘-거든’. 제효 이용주박사 회갑 기념논문집. 서울: 도서출판 한샘.
 구현정. 1998. 조건의 의미에 관한 인지적 접근-인접 범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어문학연구 제7집, 91-122. 상명대학교.
 구현정. 1999a. Grammaticalization of Conditionals in Korean. 어학연구 35:4, 543-558.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구현정. 1999b. 범언어적으로 본 조건 범주의 문법화. 한국어 의미학 4, 161-188. 한국어 의미학회.
 구현정. 2000 [1997]. 개정 대화의 기법: 이론과 실제. 서울: 경진문화사.
 구현정, 이성하 2000. [Koo, Hyun Jung & Seongha Rhee] Grammaticalization of a Sentential End Marker from a Conditional Marker. Paper presented at Southeastern Conference on Linguistics at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Oxford, Mississippi.

- 권재일. 1988. 접속문 구성의 변천 양상. 언어 13:2, 493-515. 한국언어학회.
- 권재일. 1998. 한국어문법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리의도. 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완. 2000. 현대국어 종결어미의 변천.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1. 서울: 박이정.
- 서태룡. 1997. 어말어미의 변화. 국어사연구. 서울: 태학사.
- 서태룡. 1998. 접속어미의 형태. 문법연구와 자료. 서울: 태학사.
- 양영하. 1998. 방송 상담 대화의 구조와 체계 분석-화제전환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창돈. 1980. 어휘사 연구. 서울: 이우출판사.
- 이동혁. 2000. 현대국어 연결어미의 형성.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1. 서울: 박이정.
- 이성하. 1996. [Rhee, Seongha]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The Development in Korean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현희. 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이해영. 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연희. 2000. 한국어 연결어미의 문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정재영. 1996 [1993].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서울: 태학사.
- 정재영. 1996.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의 한국어문. 한국문화 18.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최전승. 1992. 조건관계 접속어미의 한 유형 '-거드면'에 대하여: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자료와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논문집(이규창박사정년기념). 서울: 집문당.
- Akatsuka, Noriko. 1985. Conditionals and the Epistemic Scale. *Language* 61, 625-639.
- Bybee, Joan L.,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ybee, Joan L. and William Pagliuca. 1985. Cross-linguistic Comparison and the Development of Grammatical Meaning. In Jacek Fisiak (ed.) *Historical Semantics, Historical Word Formation*. Berlin: Mouton, 59-83.
- Haiman, John. 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54, 564-589.
- Haiman, John.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4, 781-819.
- Haiman, John. 1994. Ri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In Pagliuca, William (ed.) *Perspectives on Grammaticaliz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eine, Bernd, Ulrike Claudi, and Friederike Hunnemeyer. 1991a.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 Bernd, Ulrike Claudi, and Friederike Hunnemeyer. 1991b. From Cognition to Grammar. In Traugott &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1: 149-187.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opper, Paul. 1987. *Emergent Grammar*.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3, 139- 157.

- Hopper, Paul. 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Traugott &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1, 17-35.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orne Tooke, John. 1857 [1786 & 1805]. *Epea Pteroenta or the Diversions of Purley* 2. London.
- Kuryłowicz, Jerzy. 1975 [196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Coseriu (ed.) *Esquisses Linguistiques II*. Munich: Fink, 38-54.
- Traugott, Elizabeth Closs. 1985. Conditional Markers. In Haiman (ed.)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Traugott, Elizabeth Closs & Ekkehard König. 1991.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Traugott a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1, 189-218.

구현정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충남 천안시 안서동 98-20
 전화번호: 82-41-550-5115
 Fax: 82-41-562-0213
 E-mail: hyunjkoo@smuc.ac.kr

이성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화번호: 82-2-961-4797
 Fax: 82-2-959-4581
 E-mail: srhee@hufs.ac.kr